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현황과 발전방안

## Present and Future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도선(혜천대학교 경찰경호과)

### 차 례

1. 서론
2. CPTED의 개념과 의의
3. CPTED의 현재와 미래
4. 결론

## 1. 서론

범죄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경찰의 대응노력은 다양한 현실적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주체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개념과 더불어 최근 ‘협력치안(cooperative policing)’에 이르기까지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경찰조직과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완벽한 대응방안으로 한계가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적 노력이 무질서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임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의식과 요구는 안전한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철학적 가치와 더불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범죄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으로 기인된다는 점은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을 통해서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의 범죄예방 정책은 방범용 CCTV의 증설과 치안인력의 증원, 순찰의 강화로 요약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미흡한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각종 시설과 인력을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예방 대책으로서 효용가치에 대한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범죄예방 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기법으로 여러 학문간 연계를 통해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 시 범죄의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원리이자 실천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두문자 ‘CPTED’로 표기하고 있으며, 본 개념은 범죄예방분야에 있어 새로운 전략과 철학으로 적절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환경의 효율적 변화를 통해 범죄의 양적인 감소와 더불어 범죄자의 범행의지의 감소,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의 감소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함양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통섭적인 기술이자 전략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실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학·경찰학·건축학·도시계획·심리학적 접근과 조명, 조경, 색채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적 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잠재적 범행기회의 차단 및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효과성이 관련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접목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의 개념과 의의, 관련 법제의 검토, 국내도입 현황 및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효

과적인 범죄예방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CPTED의 개념과 의의

### 2.1 CPTED의 개념

1970년대 범죄와 환경과의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C. Ray Jeffrey가 그의 원론적인 책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1971년에 출간하였고, 곧바로 이어서 Newman이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1972)을 출간하였는데 이 두 책의 출간으로 이후 범죄에 있어서 환경의 역할과 영향을 탐구한 수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게 되었다. Jeffrey와 Newman은 공히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의 환경범죄학적 논의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환경범죄학은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이란 시각을 통해서 범죄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CPTED란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정의한다[2]. 개념적으로 CPTED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주는 실무적 이론이다[3].

CPTED는 결국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철학이며, 기술이다. 또한 범죄문제를 다루는 경찰과 같은 실무영역에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CPTED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기본 원리를 갖추어야 한다[4]. 일부의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상호중첩적이며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첫째,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이다. 이 원리는 범죄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자, 환경을 구성하는 요건 혹은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시민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원리이다[4].

이 원리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위험-효과비율(Risk-Reward Ratio)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

의 결과로 인식하기에 사람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접근통제(Access Control)이다.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거나 차단하여 범죄대상물로의 접근과 침입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동의 노출위험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셋째,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이다. 어떠한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가시적으로 조성하여 잠재적 범행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시받거나 제지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범죄의 의지나 욕구를 억제시키는 원리이다.

넷째, 활동성증대(activity support)이다. 이것은 활용성 증대 혹은 활동지원 시설의 설치를 의미하는데, 공공장소 및 활동가능 영역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용과 이용을 유도하거나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기능(eyes on the street)을 강화하여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공간과 시설에 대한 사용 및 이용빈도를 증가시켜 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원리인 것이다.

다섯째,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이다. 어떠한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에 계획되고, 설계된 형태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유지되도록 하며, 용이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설계하여 이용자 및 사용자의 파손행위 등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깨어진 창문이론(Broken Window Theory)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관리되지 않은 공간과 시설에서는 주민들의 책임의식 약화와 결여로 인해 각종 무질서 및 훼손, 파괴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에 용이하고, 시민들의 통행이나 이용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그 일대가 범죄화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원리이다.

결국 황폐화되거나 버려진 듯한 인상을 주는 장소와 공간, 시설물 등은 사용자에게 대한 통제나 관심부족으로 표시되거나 인식되기에 그로 인한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비와 관리 등의 유지관리가 유의미함을 설명한다.

## 2.2 CPTED의 개념

### 2.2.1 전통적 범죄예방정책과 CPTED

전통적 접근은 범죄자, 범죄, 범죄자의 배경에 중점을 둔다. 그 목적은 범죄자를 식별하고 파악함으로써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장벽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CPTED는 일상적인 인간의 활동(human activities)과 그 목적에 중점을 둔 자연적 접근방법(natural approach)으로, 거주자, 기업, 정부 등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범죄예방, 보안, 법집행 전문가들은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CPTED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Crowe(2000)는 전통적인 범죄이론에서 CPTED를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보나, 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다. 즉, 범죄연구는 범죄인의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을 연구하는 범죄인의 기질론적 접근(dispositional approach)과 범죄가 빈발하는 특정장소의 상황적 요인들을 연구하는 상황적 접근(situational approach)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에서 범죄란 가해자 또는 피의자만에 의한 불법적 행위로 정의되지만, 후자는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특정장소에서 벌이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즉, 후자의 경우 범죄예방이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외부환경에 의하여 제공되는 범죄유발요인(범행의 기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

### 2.2.2 CPTED의 본질적 가치

대부분의 범죄는 일정한 시·공간적 발생패턴과 피해 대상의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이 CPTED의 핵심인 것이다.

CPTED는 도시계획, 건축계획적 요소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별·맞춤형 기법을 통해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공

간 및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외의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면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연구 및 지원기관(NIJ 등) 설립과 지자체 조례개정 및 디자인 기법개발이 이루어졌고, 영국의 경우 방법주택인증제도(SBD: Secured by Design), 일본의 경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방범우량맨션인증제도, 호주의 안전설계제도 및 범죄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CITED기법의 개발과 활용이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도시, 건축, 경찰학, 범죄학, 조경, 조명, 색채, 심리, 사회, 컴퓨터 및 IT 분야 등이 통섭적이고 융·복합적인 다학제적 학문으로 자리 잡아 정부의 제도·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각국의 현실에 맞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 국가표준 및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실무적용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CPTED가 범죄예방을 위한 완벽한 대안은 아니며, CPTED와 범죄의 유형에 대한 이해없이 CCTV와 같은 방범시설 확충을 CPTED로 오해하고 확산 및 적용하는 것으로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CPTED는 자연친화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전략인바 기존의 시설과 공간등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활동성 증대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막대한 규모의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한다.

CPTED 기법의 적용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정책 보다는 특정 지역 및 공간, 시설의 환경적 패턴과 국지적인 상황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해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개발과 신규건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CPTED 원리와 전략을 반영할 경우 상당한 비용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및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본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이면서도 주기적인 환경의 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5].

## 3. CPTED의 현재와 미래

### 3.1 CPTED의 현재

부천시,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세종시, 은평뉴타운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서울시 연남동 차이나타운 지구단위계획 등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촉진구역 등의 도시재생 사업 등에 CPTED 개념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 근본적으로 CPTED 개념이 반영되어 구체화된 사례는 부족하다. 주로 CCTV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대부분 계획 및 준공 후 CITED 개념을 연계시켜 접목한 주요사례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3.1.1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2005년 건설교통부에서 화성 동탄, 판교신도시 적용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하였고, 2006년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외 CPTED 전문가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2009 국토해양부에서 미래도시비전 2020 4대목표, 10대전략 중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CPTED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으며, 2009년 서울특별시에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여성행복프로젝트 중 여행아파트 및 주차장에 도입하였고, 은평2지구, 신내2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는 초고층 건축물 테러예방설계를 의무화 하였다.

### 3.1.2 지방자치단체

2005년 부천시 시는 CPTED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CPTED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부천시 원미구 심곡 1·2동과 소사본동 일부 구역에서는 사업이 실시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침입절도가 40%가량 감소하고 침입강도 역시 60.8%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대[8]. 2008년에는 서울 이문, 휘경, 신길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가로정비 중심의 CPTED 기법을 적용하였고, 2008년에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CPTED 기법이 도입되어 D건설, U건설, 구 주택공사 등이 참여하였다. 2008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 뉴타운 1지구는 설계부터 셉테드 개념을 일부 도입했다. 2009년에는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북 등 혁신도시에서 공동주택 및 시설, 공간별 동 기법을 도입하고, 보행자의 안전감 상승을 위한 조명 및 조경에 대한 CPTED 기법에 기반한 기술을 접목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여성안전아파트를 계획하였고, 2010년 1월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뉴타운 사업 CPTED 의무반영을 결정하였으며,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 공진중학교 학교안 전설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부산시 민공원에도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대전시도 친환경 및 범죄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춘 ‘건축심의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3.1.3 유관기관 및 건설사

2008년 U건설은 보안업체 A사와 건설사 최초 안전아파트 업무를 체결하였고, 2009년 D건설은 주부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CPTED 분야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S물산은 신길 뉴타운에 CPTED 실시설계 단계에서 자문위원회 협조와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고, 2010년에는 범죄학, 건축학, 도시계획, 조명, 조경 등 관련 학자들의 융복합적, 통섭적 개념의 한국셉테드학회가 출범한 바 있다.

2010년 D건설은 인천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CPTED를 적용시켰다. 보안전문업체 S사는 중국법인의 사업영역을 중국 도시화 사업 및 CPTED 사업 등을 진출하기로 하였다. 이미 국내에서 CPTED의 기법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한 바 있다. H건설, D건설, W건설 등은 CPTED 개념을 도입해 각 건설사의 개별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명칭하여 관련 학회의 인증을 통해 외부방문객의 감지와 통제 입주민의 범죄에 두려움 감소, 자연적 감시 및 접근통제의 관점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 3.2 CPTED의 미래

### 3.2.1 CPTED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 확대

매년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법무부관리지표인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 노력 및 국가 송무 교육’에 2014년부터 CPTED 평가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과 CPTED 교육사업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 교육사업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CPTED 순회교육 및 지방자치단체별 CPTED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6].

향후 범죄예방위원 CPTED 교육 이수 의무화, 공공시설물 CPTED 인증 법제화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추

진하여 사회인프라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라는 치안공공재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치안’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협조, 협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3.2.2 지역단위에서의 CPTED 선제적 적용

지역주민과 지역단위에서의 방법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범죄예방지도(community crime free map) 등을 활용한 주민들의 범죄 불안요소 파악이 필요하다. 해당지역과 인근의 지역안전지도를 사전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작성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발생이 용이한 공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공간 등을 표시하게 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방법에 대해 지역주민, 관공서, 경찰서 등의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도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참여로 ‘범죄공포지도’를 작성하여 도식화된 위험구역 핫스팟(hot spot)의 사각지대들을 연결하여 총 1.7km 구간을 소금길로 명명하여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호평을 받은바 있다[5].

지역사회 거점의 지역범죄예방지도(community crime free map)가 완성된 이후에는 범죄, 건축, 도시, 심리, 조경, 조명, 색채, 사회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지역범죄예방지도(community crime free map)를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관공서, 경찰서에 배포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더불어 지역단위의 실행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평가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경쟁적 도입으로 시행해야 한다.

### 3.2.3 집합효율성 증대와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의 강화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이란 “지역주민 간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결함”을 의미한다. Sampson과 동료들(1997)은 1990년대 시카고의 343개 지역사회의 범죄율 차이는 지역주민, 사업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기

인하며,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불리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무리 생활수준이 낮고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라도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의지, 공동의 노력 등 사회적 통제가 잘 가동된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제(social control)란 “가족, 조직이나 사회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도록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통제는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의 두 가지가 있다. 공식적인 사회통제(formal social control)는 사회 의무를 어길 때에 적용되는 처벌의 내용을 명문화한 법이나 규칙에 근거한다. 경찰과 법원은 공식적인 사회통제기관이다.

이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는 법률이나 기타 성문화된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관습이나 공동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주체는 가족이나 동료집단 등 일차집단부터에서 지역사회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집합효율성이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주민 간에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근감이 싹트고, 이러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행동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일수록 서로의 안전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책임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이다[7].

집합효율성이론은 시민들의 관계와 자발적인 통제가 범죄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경찰중심 범죄예방 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들,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은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주민들 간의 관계형성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합효율성이론은 시민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된 범죄예방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7].

## 4. 결론

최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흉포화·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논의한 CPTED의 개념과 원리를 통해 범죄예방분야의 새로운 정책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의 CPTED 도입현황에 관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건설사 등의 활발한 움직임과 도입과 적용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CPTE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공공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에서의 CPTED 실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CPTED 기법이 단순히 건축이나 도시설계 등의 기술적 측면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는바, 집합효율성 증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능의 강화에 대해 논의하여 결국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회와 환경적 고려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

김길태 사건, 강호순 사건, 오원춘 사건 등에서 보듯 아파트보다 노후한 단독주택 지역, 재개발 지역들이 범죄에 더 취약한 만큼 도시정비 사업에도 CPTED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형사·사법적 사후대책보다 CPTED 같은 사전예방대책이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대안이 되는 만큼 아동이나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과 취약한 공간과 시설에 CPTED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Crowe, T.,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ed., Oxford: Butterworth-Heinemann, 2000.
- [2] 박경래 외,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3] 이민식·박현호,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8.
- [4] 신의기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5] Moffat, 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 Management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25, No.4, pp.19-31, 1983.

- [4] 박형민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5] 서울특별시, 주민중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3.
- [6] 법무부, 법무부 내부자료, 2013.
-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8] 매일경제 2011. 5. 5

#### 저자소개

● 이 도 선(Do-Sun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석사)
- 2011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혜천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

<관심분야> : 범죄예방, CPTED, 민간경비, 산업보안